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비교

이정은¹, 김신정^{2*}

¹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²한림대학교 간호학부

Comparative study of Needs about First Aid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iddle school students

Lee, Jung-Eun¹ and Kim, Shin-Jeong^{2*}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발달단계에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20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공통적으로 「중독」(2.77±.49, 2.75±.50) 범주에서 교육요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 정도의 차이는 대상자의 성별($t=-7.618$, $p=.0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3.336$, $p=.036$),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 유무($t=6.509$,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대상자의 발달연령과 요구도를 고려한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in order develop first aid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1203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 In the mean score of 11 categories, 「poisoning」 was high(2.76±.49).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eds of first aid educ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der($t=-7.618$, $p=.000$), judgement ability of emergency situation($F=3.336$, $p=.036$), and education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or not($t=6.509$, $p=.000$).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first aid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needs.

Key Words : Education Needs, First aid,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각종 산업발전과 경제의 성장으로 복잡한 세계로 급변하고 있다. 매일의 우리 생활에서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사고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망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응급상황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

는데 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

응급처치란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2]. 응급환자발생 시 가장 결정적인 초기의 요인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응급상황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초 반응자이다. 대부분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도

본 연구는 2009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교신저자 : 김신정(ksj@hallym.ac.kr)

접수일 10년 03월 18일

수정일 (1차 10년 05월 13일, 2차 10년 06월 01일)

게재확정일 10년 06월 18일

움을 필요로 하므로[3]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아동은 호기심이 많고 신체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며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발달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4]. 아동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의하면 외상성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외상성 질환에 비해 외상성 질환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성장 및 발달특성과 활동량이 많아지고 접촉하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손상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5].

우리의 일생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령기는 건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평생의 생활을 좌우 할 만큼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에 있어서 사고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6]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 정책적,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7]. 학교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초등학교 시기는 지적,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이 형성되므로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기로 고려된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지식이나 가치관 및 생활태도가 형성되므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9]. 그러나 학교는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예고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아주 간단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몰라 무방비 상태로 보건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10].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이라고 제시되어 있다[11]

그러므로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발달단계에 맞는 대상자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여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대상자의 요구

구에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를 파악한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를 비교한다.
3.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해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 602명과 3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 4-6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는 저학년은 인지발달상 응급처치관련 이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대상자 수는 전체 1210명의 대상자 중에서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03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pm 2.32\%$ 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료 수집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3개 학교를 소개받고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의 대상자에게 설문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가 참여를 허락한다는 고지동의(informed consent) 내용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서명을 받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도 재차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았다.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응답 소요시간: 평균 10분 이내).

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응급처치 교육 요구는 응급처치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분류된 「응급처치의 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심폐소생술」, 「근 골격 손상」, 「열·냉 손상」, 「상처」, 「중독」, 「교상」, 「이물 제거」, 「기타」의 11개의 범주[12]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28개 문항의 3점 척도로, 각 문항은 ‘필요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필요하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0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39$ 로 높게 나타났다.

	초5학년	200	16.6
	초6학년	200	16.6
	중1학년	175	14.5
	중2학년	202	16.8
	중3학년	226	18.8
성별	남	600	49.9
	여	603	50.1
가족형태	대가족	1014	84.3
	핵가족	109	15.7
부모동거여부	동거	1172	97.4
	비동거	31	2.6
형제순위	첫째	565	47.0
	둘째	540	44.9
	셋째이상	98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ANOVA test에서 유의한 경우는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생 600명(49.9%)과 중학생 603명(50.1%)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 5, 6학년생이 각각 200명(16.6%)이었으며 중학생은 1학년이 175명(14.5%), 2학년이 202명(16.8%), 3학년이 226명(18.8%)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603명(50.1%)으로 남학생(49.9%)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84.3%)을 차지하였으며 97.4%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형제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인 경우가 44.9%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203)

특성	분류	빈도	백분율
학교	초등	600	49.9
	중등	603	50.1
학년	초4학년	200	16.6

3.2 대상자의 응급상황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응급상황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중학생에서 59.7%(360명)로 초등학생의 경우(40.5%, 243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에서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5학년이 39.1%(95명), 6학년이 31.7%(77명), 4학년이 29.2%(71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63.0%(153명)로 여학생(37.0%, 90명)보다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이 36.4%(131명), 2학년이 31.9%(115명), 1학년이 31.7%(114명)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이 50.8%(183명)로 남학생의 49.2%(177명)보다 많았다.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7.02%(342명)와 51.2%(309명)로 가장 많았으며, ‘잘 판단’한다는 경우는 각각 40.5%(243명)와 45.8%(276명), ‘잘 판단 못함’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5%(15명)와 3.0%(18명)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초등학생에서는 90.8%(545명), 중학생은 83.8%(5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응급관련 특성 (N=1203)

특성	분류	초등학생	중학생
		N(%)	N(%)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	있다	243(40.5)	360(59.7)
	없다	357(59.5)	243(40.3)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잘 판단	243(40.5)	276(45.8)
	보통	342(57.0)	309(51.2)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잘 판단 못함	15(2.5)	18(3.0)
	유	545(90.8)	503(83.8)
	무	55(9.2)	97(16.2)

3.3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는 평균 평균 점 3점 만점에 2.66(±.3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8.64(±11.78)점이었으며 다른 범주도 모두 8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중독」이 2.76(±.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열·냉 손상」이 2.75(±.52)점, 「화재 및 화상」이 2.73(±.43)점, 「교상」이 2.72(±.47)점, 「구조 및 운반」이 2.70(±.42)점, 「심폐소생술」이 2.64(±.58)점, 「응급처치의 원칙」, 「근골격 손상」, 「상처」, 「이물 제거」가 각각 2.62(±.42, ±.51, ±.43, ±.47)점, 「기타」가 2.58(±.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중독」이 2.77(±.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열·냉 손상」이 2.74(±.54)점, 「교상」이 2.73(±.45)점, 「화재 및 화상」이 2.71(±.41)점, 「구조 및 운반」이 2.69(±.40)점, 「응급처치의 원칙」이 2.67(±.36)점, 「상처」가 2.61(±.38)점,

「심폐소생술」이 2.59(±.61)점, 「근골격 손상」과 「이물 제거」가 각각 2.58(±.51, ±.45)점, 「기타」가 2.56(±.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서는 「열·냉 손상」과 「중독」이 각각 2.75(±.51, ±.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 및 화상」이 2.74(±.44)점, 「구조 및 운반」이 2.71(±.44)점, 「교상」이 2.70(±.49)점, 「심폐소생술」이 2.69(±.55)점, 「이물 제거」가 2.66(±.48)점, 「근골격 손상」이 2.65(±.50)점, 「상처」가 2.62(±.47)점, 「기타」가 2.59(±.55)점, 「응급처치의 원칙」이 2.58(±.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의 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는 학교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는 「일반적 원칙」(t=3.438, p=.001), 「심폐소생술」(t=-3.108, p=.002), 「근골격 손상」(t=-2.147, p=.032), 「이물 제거」(t=-2.641, p=.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

[표 3]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 N=1203

번호	범주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M±SD	M±SD	M±SD	100점 환산 M±SD
1	응급처치의 원칙	2.67±0.36	2.58±0.47	2.62±0.42	87.46±14.29
2	구조 및 운반	2.69±0.40	2.71±0.44	2.70±0.42	90.07±14.19
3	화재 및 화상	2.71±0.41	2.74±0.44	2.73±0.43	90.86±14.46
4	심폐소생술	2.59±0.61	2.69±0.55	2.64±0.58	88.09±19.56
5	근골격손상	2.58±0.51	2.65±0.50	2.62±0.51	87.20±17.10
6	열·냉손상	2.74±0.54	2.75±0.51	2.75±0.52	91.52±17.52
7	상처	2.61±0.38	2.62±0.47	2.62±0.43	87.24±14.39
8	중독	2.77±0.49	2.75±0.50	2.76±0.49	91.99±16.64
9	교상	2.73±0.45	2.70±0.49	2.72±0.47	90.51±15.97
10	이물제거	2.58±0.45	2.66±0.48	2.62±0.47	87.35±15.74
11	기타	2.56±0.54	2.59±0.55	2.58±0.55	85.93±18.41
합계(100점 만점)		88.62±10.33	88.67±13.07		88.64±11.78

[표 4]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

(N=1203)

특성	분류	N	일반적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CPR	근골격손상	열·냉손상		
			M±SD	M±SD	M±SD	M±SD	M±SD	M±SD		
학교	초등학생	600	2.67±0.36	2.69±0.40	2.71±0.41	2.59±0.61	2.58±0.51	2.74±0.54		
	중학생	603	2.58±0.47	2.71±0.44	2.74±.44	2.69±0.55	2.65±0.50	2.750.51		
	t		3.438	-.941	-1.118	-3.108	-2.147	-.261		
	p		.001**	.347	.264	.002**	.032*	.794		
특성	분류	N	상처	중독	교상	이물제거	기타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초등학생	600	2.61±0.38	2.77±0.49	2.73±0.45	2.58±0.45	2.56±0.54	2.66±0.31
학교	중학생	603	2.62±0.47	2.75±0.50	2.70±0.49	2.66±0.48	2.59±0.55	2.66±0.39		
			t		-.399	.940	.941	-2.641	-.953	-.075
			p		.690	.347	.347	.008**	.341	.941

반적 원칙」의 경우만 초등학생(2.67±0.36)이 중학생(2.58±0.47)보다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가 높았으며 「심폐소생술」(초등학생 2.59±0.61, 중학생 2.69±0.55), 「근골격 손상」(초등학생 2.58±0.51, 중학생 2.65±0.50), 「이물제거」(초등학생 2.58±0.45, 중학생 2.66±0.48)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응급처치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 정도를 11개의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일반적 원칙」의 범주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F=3.614, p=.028)과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t=2.359, p=.01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2.72±0.35), '5학년(2.65±0.39)', '6학년'(2.62±0.36)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69±0.35)는 경우가 '없다'(2.60±0.43)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6.075, p=.0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F=3.151, p=.044),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t=2.688,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의 경우 '여자'(2.69±0.38)가 '남자'(2.46±0.38)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잘 판단' 2.59±0.46)한다는 경우와 '보통' 2.59±0.47)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잘 판단 못함' 2.31±0.76)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62±0.45)는 경우가 '없다' 2.50±0.53)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 및 운반」 범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t=-2.618,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

【표 5】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 (N=600)

특성	분류	N	일반적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CPR 근골격손상 열·냉손상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4학년	200	2.72±0.35a	2.71±0.39	2.72±0.42	2.59±0.64	2.56±0.55	2.74±0.59
	5학년	200	2.65±0.39ab	2.65±0.42	2.69±0.44	2.56±0.62	2.61±0.50	2.75±0.53
	6학년	200	2.62±0.36b	2.71±0.39	2.73±0.40	2.63±0.57	2.58±0.49	2.75±0.50
	F		3.614	1.780	.498	.764	.569	.023
	p		.028*	.170	.608	.466	.567	.978
성별	남	321	2.64±0.43	2.65±0.44	2.66±0.46	2.54±0.65	2.57±0.54	2.72±0.56
	여	279	2.69±0.33	2.74±0.36	2.77±0.35	2.64±0.56	2.60±0.49	2.77±0.52
	t		-1.770	-2.618	-3.393	-2.092	-.881	-1.078
	p		.077	.009**	.001**	.037*	.379	.281
	가족형태	핵가족	505	2.67±0.37	2.69±0.41	2.72±0.42	2.59±0.62	2.58±0.52
대가족		95	2.63±0.37	2.70±0.39	2.71±0.42	2.60±0.57	2.58±0.51	2.74±0.53
t			1.072	-.210	.029	-.174	-.001	-.112
p			.286	.834	.977	.862	.999	.911
부모동거 여부		동거	586	2.67±0.37	2.69±0.41	2.71±0.42	2.59±0.61	2.59±0.41
	비동거	14	2.61±0.41	2.79±0.25	2.79±0.43	2.71±0.47	2.39±0.68	2.57±0.85
	t		.605	-.893	-.667	-.771	1.405	.762
	p		.546	.372	.505	.441	.161	.459
	형제순위	1	260	2.69±0.36	2.72±0.36	2.73±0.43	2.61±0.60	2.63±0.48
2≤		340	2.65±0.38	2.67±0.44	2.70±0.42	2.58±0.62	2.55±0.54	2.71±0.55
t			1.231	1.661	.876	.621	2.019	1.245
p			.219	.097	.381	.535	.044	.213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		유	243	2.65±0.39	2.68±0.42	2.69±0.44	2.59±0.61	2.61±0.53
	무	357	2.68±0.35	2.70±0.40	2.73±0.41	2.59±0.61	2.56±0.50	2.74±0.52
	t		-1.080	-.578	-1.077	-.050	1.136	-.650
	p		.281	.564	.282	.960	.256	.516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잘 판단	243	2.68±0.39	2.71±0.41	2.73±0.43	2.60±0.62	2.58±0.53
보통		342	2.66±0.35	2.68±0.40	2.70±0.41	2.58±0.61	2.58±0.51	2.73±0.55
잘 판단 못함		15	2.55±0.41	2.64±0.34	2.67±0.41	2.53±0.52	2.67±0.45	2.80±0.56
F			1.053	.430	.544	.167	.196	.295
p			.350	.651	.580	.846	.822	.744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유	448	2.69±0.35	2.70±0.40	2.73±0.40	2.60±0.60	2.59±0.52	2.75±0.53
	무	152	2.60±0.43	2.67±0.43	2.65±0.47	2.55±0.64	2.57±0.51	2.73±0.58
	t		2.359	.689	2.002	1.027	.508	.301
p		.019*	.491	.046*	.305	.612	.764	

*: p<.05, **: p<.01, ***: p=.000

[표 5] 계속

(N=600)

특성	분류	N	상처	중독	교상	이물제거	기타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4학년	200	2.64±0.38	2.80±0.48	2.76±0.44	2.63±0.46	2.62±0.54	2.69±0.31
	5학년	200	2.61±0.41	2.75±0.53	2.68±0.49	2.56±0.49	2.51±0.59	2.64±0.34
	6학년	200	2.59±0.37	2.77±0.47	2.73±0.44	2.57±0.42	2.57±0.51	2.65±0.28
	F		.967	.749	2.287	1.183	1.971	1.691
	p		.381	.473	.102	.307	.140	.185
성별	남	321	2.57±0.42	2.74±0.52	2.65±0.50	2.57±0.47	2.53±0.56	2.62±0.34
	여	279	2.66±0.35	2.81±0.46	2.82±0.38	2.60±0.44	2.60±0.53	2.70±0.26
	t		-3.144	-1.719	-4.588	-1.770	-1.751	-3.241
	p		.002**	.086	.000***	.343	.080	.001**
	가족형태	핵가족	505	2.62±0.39	2.77±0.49	2.73±0.45	2.58±0.46	2.56±0.55
대가족		95	2.59±0.38	2.78±0.51	2.70±0.51	2.60±0.43	2.56±0.55	2.65±0.32
t			.572	-.121	.779	-.361	.027	.315
p			.568	.904	.436	.718	.979	.753
부모동거 여부		동거	586	2.61±0.39	2.77±0.50	2.73±0.46	2.59±0.45	2.56±0.55
	비동거	14	2.57±0.20	2.86±0.36	2.65±0.50	2.29±0.55	2.62±0.45	2.62±0.23
	t		.735	-.644	.706	2.486	-.389	.533
	p		.473	.520	.480	.013 ⁺	.698	.594
	형제순위	1	260	2.63±0.38	2.82±0.47	2.76±0.43	2.61±0.44	2.57±0.56
2≤		340	2.60±0.40	2.74±0.51	2.70±0.48	2.57±0.47	2.56±0.54	2.64±0.32
t			1.090	1.852	1.573	.970	.102	1.630
p			.276	.065	.116	.333	.919	.104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		유	243	2.59±0.42	2.77±0.50	2.71±0.48	2.56±0.48	2.58±0.55
	무	357	2.63±0.37	2.77±0.49	2.74±0.44	2.60±0.44	2.5±0.54	2.67±0.29
	t		-.957	.014	-.723	-.956	.543	-.819
	p		.339	.989	.470	.340	.587	.413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잘 판단	243	2.64±0.40	2.82±0.46	2.77±0.43a	2.61±0.45	2.59±0.54
보통		342	2.59±0.39	2.75±0.50	2.71±0.47ab	2.57±0.45	2.54±0.55	2.64±0.30
잘 판단 못함		15	2.63±0.40	2.60±0.74	2.50±0.63b	2.56±0.61	2.53±0.68	2.61±0.32
F			1.061	2.417	3.029	.597	.607	1.050
p			.347	.090	.049 ⁺	.551	.545	.351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유	448	2.62±0.38	2.80±0.48	2.75±0.44	2.60±0.44	2.57±0.55	2.67±0.30
	무	152	2.60±0.42	2.71±0.53	2.60±0.51	2.54±0.49	2.54±0.55	2.62±0.34
	t		.535	1.546	2.032	1.405	.493	1.568
	p		.593	.124	.043 ⁺	.160	.622	.118

*: p<.05, **: p<.01, ***: p=.000

자'(2.74±0.36)가 '남자'(2.65±0.44)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6.167, p=.0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F=5.005, p=.007),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2.378, p=.01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의 경우 '여자'(2.82±0.33)가 '남자'(2.59±0.53)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잘 판단'(2.73±0.44)과 '보통'(2.72±0.43)이 '잘 판단 못함'(2.39±0.71)보다 높았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5±0.40)는 경우가 '없다'(2.64±0.54)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재 및 화상」 범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t=-3.393, p=.001)과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2.002, p=.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2.77±0.35)가 '남자'(2.66±0.46)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3±0.40)는 경우가 '없다'(2.65±0.47)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4.981, p=.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2.251, p=.02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2.82±0.37)가 '남자'(2.64±0.51)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7±0.42)는 경우가 '없다'(2.67±0.50)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범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t=-2.092, p=.03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2.64±0.56)가 '남자'(2.54±0.65)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4.040, p=.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2.094, p=.03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2.78±0.47)가 '남자'(2.59±0.63)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3±0.52)는 경우가 '없다'(2.62±0.63)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 (N=603)

특성	분류	N	일반적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CPR	근골격손상	열·냉손상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1학년	175	2.65±0.40	2.73±0.39	2.77±0.44	2.70±0.55	2.63±0.51	2.77±0.50
	2학년	202	2.54±0.50	2.68±0.49	2.70±0.48	2.67±0.58	2.61±0.54	2.69±0.57
	3학년	226	2.57±0.50	2.72±0.45	2.75±0.42	2.71±0.55	2.69±0.48	2.79±0.46
	F		2.482	.693	1.064	.230	1.080	2.339
성별	남	279	2.46±0.54	2.59±0.53	2.64±0.51	2.59±0.63	2.53±0.57	2.63±0.61
	여	324	2.69±0.38	2.82±0.33	2.82±0.37	2.78±0.47	2.75±0.43	2.84±0.38
	t		-6.075	-6.167	-4.981	-4.040	-5.256	-5.082
	p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형태	핵가족	509	2.58±0.47	2.71±0.45	2.73±0.45	2.69±0.56	2.64±0.51	2.74±0.50
	대가족	94	2.61±0.52	2.75±0.44	2.77±0.43	2.72±0.56	2.70±0.48	2.78±0.55
	t		-.605	-.816	-.620	-.539	-1.021	-.557
	p		.545	.415	.535	.590	.308	.577
부모동거 여부	동거	586	2.58±0.48	2.71±0.45	2.74±0.45	2.69±0.56	2.65±0.51	2.75±0.51
	비동거	17	2.60±0.34	2.75±0.34	2.71±0.44	2.71±0.47	2.68±0.43	2.65±0.61
	t		-.186	-.294	.315	-.082	-.237	.839
	p		.852	.769	.753	.934	.813	.402
형제순위	1	305	2.60±0.45	2.73±0.43	2.77±0.43	2.73±0.53	2.63±0.51	2.75±0.51
	2≤	298	2.57±0.50	2.70±0.46	2.71±0.47	2.66±0.58	2.66±0.51	2.75±0.52
	t		.697	.668	1.441	1.615	-.803	-.099
	p		.486	.504	.150	.107	.422	.921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	유	360	2.59±0.45	2.73±0.41	2.76±0.42	2.70±0.54	2.66±0.50	2.77±0.48
	무	243	2.57±0.52	2.70±0.50	2.71±0.49	2.68±0.60	2.63±0.53	2.71±0.56
	t		.482	.793	1.213	.572	.549	1.285
	p		.630	.428	.226	.568	.583	.2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잘 판단	276	2.59±0.46a	2.73±0.44a	2.77±0.42	2.72±0.53	2.67±0.51a	2.76±0.49
	보통	309	2.59±0.47a	2.72±0.43a	2.72±0.46	2.68±0.57	2.65±0.49a	2.74±0.52
	잘 판단 못함	18	2.31±0.76b	2.39±0.71b	2.61±0.58	2.50±0.71	2.33±0.79b	2.67±0.69
	F		3.151	5.005	1.941	1.471	3.744	.499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유	417	2.62±0.45	2.75±0.40	2.77±0.42	2.73±0.52	2.68±0.48	2.79±0.46
	무	186	2.50±0.53	2.64±0.54	2.67±0.50	2.62±0.63	2.57±0.57	2.65±0.60
	t		2.688	2.378	2.251	2.094	2.271	2.902
	p		.008**	.018*	.025*	.037*	.024*	.004**

*: p<.05, **: p<.01, ***: p=.000

[표 6] 계속 (N=603)

특성	분류	N	상처	중독	교상	이물제거	기타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1학년	175	2.61±0.45	2.75±0.50	2.73±0.48	2.66±0.46	2.53±0.56	2.67±0.35
	2학년	202	2.61±0.49	2.73±0.55	2.67±0.54	2.60±0.52	2.57±0.58	2.63±0.43
	3학년	226	2.65±0.47	2.76±0.48	2.70±0.48	2.70±0.47	2.66±0.52	2.68±0.39
	F		.525	.204	.699	2.133	3.011	1.089
성별	남	279	2.50±0.52	2.65±0.59	2.60±0.56	2.51±0.55	2.47±0.61	2.54±0.45
	여	324	2.72±0.39	2.82±0.41	2.79±0.42	2.78±0.38	2.70±0.48	2.76±0.30
	t		-5.817	-4.182	-4.798	-6.704	-5.278	-7.112
	p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형태	핵가족	509	2.62±0.47	2.74±0.51	2.70±0.50	2.65±0.49	2.58±0.56	2.65±0.39
	대가족	94	2.65±0.49	2.79±0.46	2.72±0.52	2.70±0.48	2.67±0.53	2.69±0.41
	t		-.521	-.854	-.445	-.924	-1.529	-.899
	p		.603	.393	.657	.356	.127	.369
부모동거 여부	동거	586	2.62±0.47	2.75±0.51	2.70±0.50	2.65±0.49	2.59±0.56	2.66±0.39
	비동거	17	2.68±0.37	2.76±0.44	2.79±0.40	2.71±0.42	2.65±0.58	2.69±0.34

	t		-483	-152	-768	-429	-404	-310
	p		.629	.879	.443	.668	.686	.757
형제순위	1	305	2.62±0.47	2.78±0.46	2.70±0.50	2.65±0.50	2.55±0.58	2.66±0.39
	2≤	298	2.62±0.47	2.71±0.55	2.70±0.51	2.67±0.47	2.64±0.53	2.66±0.40
	t		-.161	1.671	.048	-.526	-1.893	-.246
	p		.872	.095	.962	.599	.059	.806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	유	360	2.65±0.42	2.77±0.47	2.73±0.44	2.68±0.45	2.61±0.53	2.68±0.35
	무	243	2.58±0.53	2.71±0.55	2.66±0.57	2.62±0.54	2.57±0.59	2.62±0.45
	t		1.811	1.487	1.771	1.233	.665	1.477
	p		.071	.138	.077	.218	.506	.14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잘 판단	276	2.66±0.44	2.78±0.47	2.73±0.48	2.67±0.49	2.62±0.55	2.68±0.37
	보통	309	2.60±0.48	2.73±0.52	2.69±0.51	2.65±0.47	2.58±0.55	2.65±0.39
	잘 판단 못함	18	2.42±0.71	2.50±0.79	2.58±0.67	2.59±0.69	2.44±0.73	2.47±0.60
	F		2.630	2.859	.964	.396	1.157	2.646
	p		.073	.058	.382	.674	.315	.072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유	417	2.66±0.43	2.78±0.45	2.73±0.47	2.71±0.44	2.64±0.53	2.70±0.35
	무	186	2.65±0.60	2.67±0.61	2.63±0.55	2.53±0.55	2.50±0.61	2.57±0.46
	t		2.814	2.152	2.195	3.733	2.652	3.280
	p		.005**	.032 [†]	.029*	.000***	.008**	.001**

*: $p < .05$, **: $p < .01$, ***: $p = .000$

「근골격 손상」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없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5.256$,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F = 3.744$, $p = .024$),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271$, $p = .02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75 ± 0.43)가 ‘남자’ (2.53 ± 0.57)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잘 판단’ (2.67 ± 0.51)과 ‘보통’ (2.65 ± 0.49)이 ‘잘 판단 못함’ (2.33 ± 0.79)보다 높았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68 ± 0.48)는 경우가 ‘없다’ (2.57 ± 0.57)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열·냉손상」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없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5.082$,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902$, $p = .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84 ± 0.38)가 ‘남자’ (2.63 ± 0.61)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79 ± 0.46)는 경우가 ‘없다’ (2.65 ± 0.607)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처」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성별 ($t = -3.144$, $p = .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2.66 ± 0.35)가 ‘남자’ (2.57 ± 0.42)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5.817$,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814$, $p =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72 ± 0.39)가 ‘남자’ (2.50 ± 0.52)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66 ± 0.43)는 경우가 ‘없다’ (2.65 ± 0.60)는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독」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없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4.182$,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152$, $p = .03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82 ± 0.41)가 ‘남자’ (2.65 ± 0.59)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78 ± 0.45)는 경우가 ‘없다’ (2.67 ± 0.61)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상」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성별 ($t = -4.588$,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F = 3.029$, $p = .049$)과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032$, $p = .04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2.82 ± 0.38), ‘남자’ (2.65 ± 0.38)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잘 판단’ (2.77 ± 0.43)과 ‘보통’ (2.71 ± 0.47)이라고 한 경우가 ‘잘 판단 못함’ (2.50 ± 0.63)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75 ± 0.35)는 경우가 ‘없다’ (2.60 ± 0.51)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4.798$,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2.195$, $p = .02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79 ± 0.42)가 ‘남자’ (2.60 ± 0.56)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73 ± 0.47)는 경우가 ‘없다’ (2.63 ± 0.55)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물제거」 범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부모동거여부 ($t = 2.486$, $p = .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가 ‘동거’ (2.59 ± 0.45)하는 경우가 ‘비동거’ (2.29 ± 0.55)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 ($t = -6.704$, $p = .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 ($t = 3.733$, $p =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2.78 ± 0.38)가 ‘남자’ (2.51 ± 0.55)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 (2.71 ± 0.44)는 경우가 ‘없다’ (2.53 ± 0.55)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 범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의한 특성이 없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성별($t=-5.278, p=.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2.652,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의 경우 ‘여자’(2.70±0.48)가 ‘남자’(2.47±0.61)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64±0.53)는 경우가 ‘없다’(2.50±0.61)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11개 범주를 모두 합한 「전체」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t=-3.24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2.70±0.26)가 ‘남자’(2.62±0.34)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7.112, p=.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3.2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2.76±0.30)가 ‘남자’(2.54±0.45)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0±0.35)는 경우가 ‘없다’(2.57±0.46)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안전사고를 포함한 응급상황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1] 응급처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는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보겠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정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66(±.35)점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2.66(±.31), 2.66(±.39)으로 나타나 교육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는 대상자의 89.3%가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사들의 안전교육 요구도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응급처치였다[13]. 중학교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 등[9]의 연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2.8%가 응급처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대상자의 82.1%는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만이 아닌 학생들 역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가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생건수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16]를 통해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초·중학생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로[16] 응급처치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생이 45.5%, 중학생이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는 학교 정규 교과과정 중 응급처치 교육이 중학교에서 41.4%, 초등학교가 18.9%,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24.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중독」이 2.76(±0.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열·냉 손상」이 2.75(±.52)점, 「화재 및 화상」이 2.73(±0.43)점의 순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은 「화재 및 화상」과, 「중독」 범주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 연구[14]에서는 외상의 처치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의 일반원칙은 35.5%, 심폐소생술은 28.8%로 나타났고 김훈철의 연구[8]에서는 인공호흡법, 환자 운반법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심폐소생술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골절, 탈구, 염좌 등의 ‘근 골격 손상’이 13.8%, 열과 냉에 의한 손상이 12.9%, 흔히 일어나는 급한 병(기타)이 11.4%, 구조 및 운반이 8.5%, 중독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화재 예방과 화상 시 처치법, 중독예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차후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에 계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는 학교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정도의 차이는 「일반적 원칙」($t=3.438, p=.001$), 「심폐소생술」($t=-3.108, p=.002$), 「근골격 손상」($t=-2.147, p=.032$), 「이물제거」($t=-2.641, p=.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범주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빈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후 교육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내용을 보강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 정도의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t=-3.24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2.70±0.26)가 ‘남자’(2.62±0.34)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성별($t=-7.112, p=.000$),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t=3.2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2.76±0.30)가 ‘남자’(2.54±0.45)보다 높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는 ‘있다’(2.70±0.35)는 경우가 ‘없다’(2.57±0.46)는 경

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파악한 홍경용 등[12]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신정 등[11]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응급처치 교육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안전실천수준은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안전수준 실천이 높게 나타나[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와 같은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권혜란과 정지연[18]의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다른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요구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응급처치의 각 범주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각 대상자의 발달연령과 요구도를 고려한 교육자료나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실제적이고 사례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발달단계에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요구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응급처치의 범주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각 대상자의 발달연령과 요구도를 고려한 교육자료나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실제적이고 사례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자

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진우, 조병준, 김대경, “학교 보건교사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필요성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권 5호, pp. 1055-1064, 2007.
- [2]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http://links.assembly.go.kr/law>, 2008.
- [3] Lubrano, R., Romero, S., Scoppi, P., Cocchi, G., Baroncini, S., Elli, M., Turbacci, M., Scateni, S., Travasso, E., Benedett, R., Cristeni, S., Moscatelli, R., "How to become an under 11 rescuer: a practical method to teach first aid to primary schoolchildren", *Resuscitation*, 64, 303-307, 2005.
- [4] Gresham, L. S., Zirkle, D. L., Tolchin, S., Jones, C., Maroufi, A., Miranda, J., " Partnering for injurt prevention : evaluation of a curriculum-based intervention program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Pediatr Nurs*, Vol. 16-2, pp. 79-87, 2001.
- [5] 전혜진, 김소선, 배현아, 유일영, “아동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아동간호학회지, 14권 1호, PP.5-13, 2008.
- [6] 김신정, 이정은, 강경아, 송미경, 이숙경, 김성희,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15권 3호, pp. 271-281, 2009.
- [7] 이명성, 박경옥, 허혁, 이유리, “학교 안전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4.
- [8] 김훈철, "중학교의 응급처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9] 김훈철, 김세환, 박기동, 김승재,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실태조사연구", 강원대학교부설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23, pp.89-102, 1999.
- [10] 서순희,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교육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김신정, 이정은, 강경아, 송미경, 문선영, 장은영, 김성희, 이숙경,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아동간호학회지, 15권 1호, pp. 97-107, 2009.
- [12] 홍경용, 남철현, 최상복, 위광복, 김기열, "중·고등학생 응급처치 지식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권 3호, pp.77-88, 2001.
- [13] 장영희, 배소연, 정미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실태”, 유아교육연구, 17권 1호, pp. 23-44, 1997.
- [14] 배정옥, 중학생의 응급처치에 관한 인식 및 교육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조경호, 오덕자, “실업계고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스포츠리서치, 17권 6호, pp. 671-680,

2006.

- [16] 현광석, 조병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응급처치 실태 조사와 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스포츠티서치, 18권 2호, pp. 655-662, 2007.
- [17] 이영미, “일부 초등학생의 안전실천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권 5호, pp. 1115-1125, 2009.
- [18] 권혜란, 정지연, “대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7권 1호, pp. 81-94, 2003.

이 정 은(Jung-Eun Lee)

[정회원]



- 199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간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김 신 정(Shin-Jeong Kim)

[정회원]



- 1989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아동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